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어쪄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변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법공양 페이지

'나' 공한 줄 알고 '나' 없애는 공부해야

병속의 새 꺼내는 방법

문 병 속에 새를 넣고 길렀더니 이제 그 새가 날아갈 만큼 커져서 꺼내려고 하는데 그 병의 입구는 좁고, 어떻게 그 새를 꺼낼 수 있겠는가 하는 공안(公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 속의 새를 꺼낼 수 있을는지 큰스님의 가르침 바랍니다.

답 우리 사는 것이 병 속과 같습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지혜로워지면 누가 꺼내주기 이전에 스스로서 나고 들고 하는 것이 자유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거는 병에서 새를 꺼내려고 하니 꺼내겠습니까, 그게? 즉 말하자면 내 자성 불이 있는데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되느냐 이 소리죠.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일대사의 인연을 다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일일이 거쳐서 한 것이 아니라 한생각에 다 거친 겁니다. 그리고 행을 하신 겁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십시오. 부처님 법이 어떤 것인가.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사는 현실의 법이 바로 부처님 법이라는 걸 아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일을 만났어도 그 일로 인해 마음을 실천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조그마한 일이면서도 그 일로 인해 지구의 공기가 타지는 일도 매울 수가 있는 그런 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조그마한 마음이라고 하지는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병 속의 새가 점점 커지는 걸로 비유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 몸통이 병이라면, 병 속에 새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면 그 새는 저절로, 여러분이 커질 때는 저절로 나고 드는데 그렇게 한다는 생각도 없이 나고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꺼낼 것도 없고 넣을 것도 없죠. 선지식들이 얼마나 이 마음 공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병 얘기가 다 나오고 새 얘기가 다 나왔겠습니까. 그 말씀의 뜻을 마음 깊이 헤아려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영혼의 존재 알고 싶습니다

문 삼보에 귀의하고, 사대가 지수 화풍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에 속하는 것입니까? 사대에 속한다면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영혼이 사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만물은 환생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남아 있다가 환생하는 것입니까? 영혼이 남아 있다가 환생하고, 또 죽고 환생하고 하는 일을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한다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까?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환생하지 않을 때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에 두루 존재합니까. 부모가 태어나기 전 나의 본래 면목을 참구하다가 육신은 만물 속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알았으나, 나의 영혼은 어디에 있다가 육신에 깃드는 것인지를 모르겠기에 이렇게 여쭙니다. 영혼(마음)과 육신은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왜 영가천도라는 것이 있는 겁니까? 마음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인연따라 경계가 나타나면 나타내다가, 경계가 사라지면 없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경계와 둘이 아닌 하나인가요. 그래서 만물이 모두 불법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지요.

답 영혼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인과가 붙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 가는 데에 인연을 맺죠? 악한 인연도 선한 인연도 모두 컴퓨터에 입력되듯이 그 모든 것이 정수에 입력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의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또는 인과성·윤회성·업보성·세균성·영계성 이 다섯 가지가 합쳐진 그것을 바로 여러분이 인연 삼아서 자기 그곳대로, 차원대로 정자 난자를 택합니다. 택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강릉에게 갈 것은 강릉에게 가고, 금한테 갈 것은 금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죽어 있는데, 몸 속에도 가족이 되고 바깥에도 가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은 강릉대로 만나고 금은 금대로 만납니다. 이렇게 구성성이 철두철명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본체가 있습니다. 근본 본체, 예를 들어서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본성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불성 자체가 하늘과 땅을 기준해서 불기둥이라 한다면 '불'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을 말합니다. 우주와도 직결이 돼 있고 일체 만물이 자라는 그 땅과도 합류돼 있습니다. 천지가 합류돼 있고, 그래서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을 끼고, 수레가 돌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생사윤회 모든 일체가 돌아가는 것이 다 기둥을 끼고 돌아가는데, 그 기둥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그 능력은, 심성이 들어가야만 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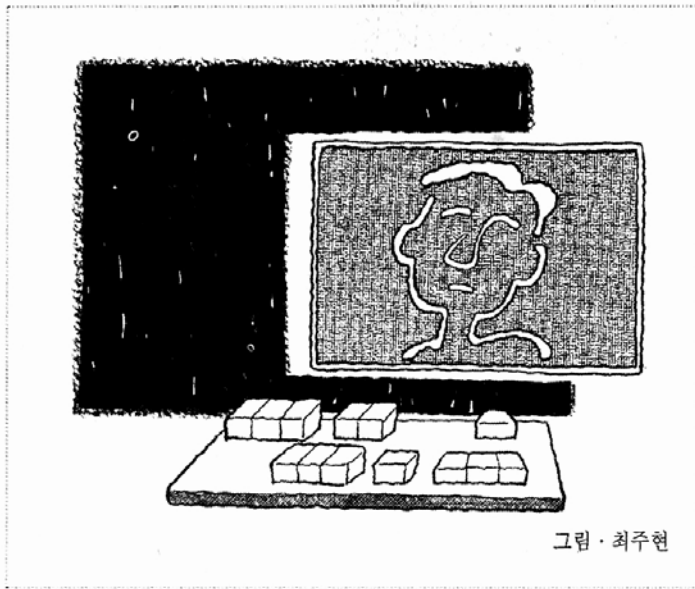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밖으로 찾지 말고 근본에 믿고 놓도록

누가 보고 듣고 견고 있나 참구하세요

니다. 그래야 바퀴가 구르죠. 그러나 바퀴를 쥔 그 심봉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바퀴만 굴러가게끔 그 힘을 배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성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틀레에 돌아가는 바퀴는 우리들이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고 돌아가는 마음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바퀴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잘못 쓰면 그 바퀴에 나쁘게 감기고, 또 좋은 마음을 써서 악이 거기에 붙어 있지 않다면 선으로서 좋은 것이 감기게 되는 거죠. 즉 입력이 되는데 그것을 바로 '영'이라고 그러니까, 영! 그리고 '혼백'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근본 불성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내되, 선하게 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마음 공부에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왜하면 악하게 쓰다 보면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선하게 쓰다 보면 악하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그

양면을 다 봐야 이겁니다. 그 양면을 놓는 법이 바로 내가 지금 여기서 일러드리는 그 자체입니다. 왜냐? 선은 감사하게 놓고 악은, 악이 나오는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악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모두 거기다가 다시 입력을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천도가 왜 필요하냐고 물어봤죠? 지렁이가 기어가다가 사람한테 밟혀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하며 영공영공 기어가는 그 아픔이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입원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어느 거든 고통의 쓰라림을 겪지 않는 생물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뿐입니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인간으로 살던 차원대로, 죽어도 그 차원대로 있습니다. 더하고 덜함이 없거든요. 산 사람은 좀 더했다 덜했다 할 수도 있지만 죽은 사람은 부딪침이 없으니까 더하고 덜함이 없는 겁니다. 한 그릇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한 그릇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천도가 필요하

다고 하는 겁니다.

처사님이 공금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라도 체험을 하고 실험을 하고 나를 발견해서 이 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 이리 저리 끄달리면서 살다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아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다음 생에 인간으로 올지 짐승으로 올지도 모르면서 세세생생 끌려다니던 그 게 가담키나 한 일입니까? 그러니 공금해하는 마음이 나오면, 밖으로 그 답을 찾아 헤매기 이전에 근본에 다 뉘고 거기에서만이 답을 줄 수 있다고 믿고 믿기세요. 우리가 이것저것 찾아 방향하면서 언제까지나 끄달리면서 살수는 없으니까요. 꼭 그렇게 하세요.

무생물도 진화를 한다는데...
문 저는 미생물학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책이나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하다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무생물들은 감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무정물인 채로 있었으면 좋을 것 무엇 때문에 진화를 하려는 의지가 생겨서 이렇게 고통을 느끼면서 거들되는 생을 되풀이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정물도 저렇게 진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자신 역시 거들되는 생을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 차원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무생물이라고 해서 진화하지 않고 윤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닌 것으로 존재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천천히, 더욱 느리게 윤회한다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 번뇌 망상, 어떤 것인들 끊으려고 한들 그게 끊어지니까, 어디, 녹여야죠. 그리고 대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활할 때에, 역술한 일이 생겼다, 아프다, 자식이 나가서 안들어온다, 뭐 별 문제들이 다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없었다면 일어날 리가 없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이 세상에 생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있기에 상대도 생기고 세상도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자기 없애는 공부를 해야죠. 자기가 공한 줄을 아는 것, 그리고 자기가 공했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문 반야경을 우연히 보다 그 도리가 마음에 외닿아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반야경에 나오는 '공'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반야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였는데 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 하였는 지요? 그리고 그 일체가 공한 그 가운데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요? 바르게 이끌어 주십시오.

답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어찌 둘이겠느냐.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니 어떠한 문제든지 마음에서 나오는 건 마음이다 되리라.' 하는 뜻입니다. 몸이 일할 때는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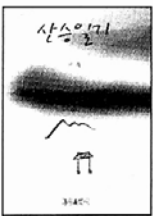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수련회와 글쓰기를 통해 생활불교에 힘쓰고 계신

지목스님의 글모음집

상승일기



《상승일기》는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절집 스님들의 생활에 대한 소묘라 할 수 있다. 신방생활, 총무 소임, 여름철 수련법회 원장 등을

지내며 스님들은 물론 제가 신자들과 접촉이 잦았던 지목스님은 그간의 절집에서의 경험을 너그러워 입심으로 풀어낸다. 법정, 성법명, 종월 스님의 이름과 관련한 일화와 전경, 구산, 고암 등 큰 스님들의 비화 등 애깃거리가 풍부하게 담겼다. 송광사 여름 수련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갖가지 사연을 담은 '여름 수련회' 편은 올 휴가철에 '짧은 출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흥미있는 소재가 될 듯하다.

- 경향신문 -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송정로 37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신국판/288쪽/8,000원

정휴스님 신작수상집

적멸의 즐거움

禪師들의 入寂과 임종계를 중심으로



죽음이 이치처럼 아름답고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 생사를 초월한 선사들은 앉아서 열반하거나 서서하였고 또 걸어가다가 입적하여 열반이 즐거움이 되게 한 감동적 이야기.

내 몸에서 사리를 수습치 말라. 그리고 부도와 탐을 만들지 말고 시신은 산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라..... 정철선사



육신이 불에 타 흙으로 돌아가 근원이 된다 흙으로 돌아가 나는 다시 돌이 되어 태어나고 혼을 키우는 그곳 속에서 천년을 산다 죽는 것이 어찌 즐거움이 되겠는가 삶도 죽음도 적멸이 되어야 즐거움이 되는 것은 부도는 안으로 적멸을 키우면서 천년을 살고 있다

- 적멸의 즐거움 본문 중에서

우리출판사 전화/313-5047 팩스/393-9696

신국판/240쪽/7,000원

